

##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The Effect of Motivation on Vocational Identity for Youth to Participate in Art Psychotherapy Program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N구에 위치한 지역 상담센터에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청소년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토대로 상관관계분석, 기술 통계 분석, t-검정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의 평균차이는 학교급에서, 진로정체감은 학교급과 종교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을,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진로정체감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들과 진로정체감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참여동기의 '여가활용' 하위요인만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여가활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의 '여가활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종교 유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가적 도구를 활용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youth motivation on vocational identity to participate in art psychotherapy programs. The subjects were 182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an art psychotherapy program at a local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N-gu, U city. As analysis methods, the correlatio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based on frequency,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From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an difference by educational stage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rt psychotherapy programs and the mean difference in vocational identity by educational stage and religion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average, a higher educational stage was associated with greater motiv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and having a relig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vocational identity. Second, only 'leisure us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vocational identity. On average, higher 'leisure use' meant higher vocational identity. Combining, 'leisure use'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vocational identit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leisure-utilizing therapy programs and content based on educational stage and religious status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vocational identity.

**Keywords** : Yout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rt Psychotherapy Program, Vocational Identity, Leisure Us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April 26, 2022

Revised May 26, 2022

Accepted June 3, 2022

Published June 3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와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전이 과정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본적 발달과업 외에도 입시경쟁, 진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및 진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고 내면에 대한 성찰로 자아정체감을 세워가는 시기이며[1], 자아정체감의 증가는 진로정체감 증가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2]. 한편 진학 및 진로상담이 청소년 상담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며[3] 진로정체감은 핵심적인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욕구와 신념, 목표, 능력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기상을 의미한다[4]. 진로정체감의 확립에서 참여동기가 중요한 변인이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또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6]. 한편 예술 활동의 경우 참여동기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체험으로 심리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특히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 참여동기에 따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은 인과적 관계가 있었다[8].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이하 치료 참여동기라고 함)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예술이라는 치료적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정체감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9]. 또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0]. 한편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11]. 따라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는 예술매체를 통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동기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표 및 목적으로 인해 취하는 준비태세로서 유기체를 활성화시키는 조건이며[12]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동기는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음악 치료프로그램이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13].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5]. 또한, 대학생들의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따라 스트레스 및 자아실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14]. 한편 Im과 Lee[15]의 연구에서는 요가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라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치료 참여동기가 스트레스 및 자아실현에 직면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선택에 있어 안정되며 긍정적이다[16]. 그러나 진로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17]. 이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기초 방안 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8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19일 까지 U시 N구에 소재한 지역 상담센터에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비밀보장, 거부권 등의 권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자기 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200부를 배포 후 부정확하게 작성되었거나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182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본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크게 5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미술 심리 작업치료 프로그램, 2단계는 음악 치료의 타악기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고, 3단계는 운동 요법의 몸동작 긴장 이완 및 자기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4단계는 공예 요법의 미적 발달 프로그램으로, 5단계는 숲 및 원예 요법으로 숲속에서 전문인 초청 강연 듣기 및 산책 참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Program name	Art Psychology Program and Content
Stage 1. Art psychology occupational therapy	Analysis through occupational art and art psychotherapy programs according to status  1. Initial interview through H.T.P technique (freestyle drawing, kinetic family drawing) 2. Job search for youth using art media (collage)
Stage 2. Music therapy	A program to cope with career stress and improve stability through music  3. A program to listen to, sing, and participate in music that increases stability(Express your interest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song lyrics and listen to feedback- own and others' perspectives, improving strengths and remedying weaknesses) 4. Stress relief and coping ability improvement program with percussion (10 most important things to me - throw-away tasks 4, 3, 2)
Stage 3. Exercise therapy	Strengthening of physical activity areas and balanced physical development through exercise  5. Body balance exercise (standing on one leg for a long time, throwing and receiving a ball, etc.) 6. Tension relaxation and self-exploration program through body movements (balancing with eyes closed, walking in place, etc.)
Stage 4. Craft therapy	Emotional stability and aesthetics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raft  7. Beadwork (decorating various props) 8. Pottery craft: Challenge of making your own mug (expressing your dream symbolically using pointillism on the mug)

Stage 5. Forest, horticultural therapy	Taking a walk in the forest after listening to a lecture by a professional for career identity (Vision Program - Help with career direction)
	9. Taking a walk in the forest after listening to a lecture by a professional for career identity (Vision Program - Help with career direction) 10. Creating a bucket list and predicting my 10 years from now(Feedback on the program - presentation of vocation, occupation, and vision)

Reference : Dr. HaeKyoung Cho(2020), Great love dream contents research institute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큰사랑드림 콘텐츠 연구소(Great love dream contents research institute)의 예술심리치료 콘텐츠 및 프로그램[18]을 10주차(1주차 1시간씩)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의 연구자와 각 치료 프로그램 교육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참여 동기 12문항, 진로정체감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내용은 성별, 학교급,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Jin[19]이 개발한 측정도구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 요인은 경험과 즐거움 6문항, 타인인정 3문항, 여가활용 3문항의 총 12문항이다. 또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형식의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높음을 뜻한다. 참여동기 하위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험과 즐거움'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9]. '타인인정'은 친구들을 포함한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9]. '여가활용'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9].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orfeli 외[20]가 제작했고 Sohn[21]이 사용한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하위요인들은 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확신, 진로일체감, 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으로 각각 다섯 문항씩 총 30문항이다. 각 항목은 리커트 5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 2.4 신뢰도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에서 Jin[19]의 기존

연구 참여동기의 전체 신뢰도는 .82, 경험과 즐거움 .84, 타인인정 .77, 여가활용 .62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 전체는 .74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alpha$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njoyment	6	.707	.749
	Recognition of others	3	.686	
	Leisure use	3	.698	
Vocational identity	Overall career exploration	5	.793	.834
	In-depth career exploration	5	.783	
	Career immersion	5	.780	
	Sense of career unity	5	.760	
	Career self-doubt	5	.861	
	Career Flexibility	5	.846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험과 즐거움 .707, 타인인정 .686, 여가활용 .698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ohn[21]의 기존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 신뢰도는 전반적 진로탐색 .807, 심층적 진로탐색 .749, 진로몰입 .722, 진로일체감 .794, 진로자기의심 .822, 진로유연성 .80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34로 나타났고 전반적 진로탐색 .793, 심층적 진로탐색 .783, 진로몰입 .780, 진로일체감 .760, 진로자기의심 .861, 진로유연성 .846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값 모두 .60이상의 신뢰도를 만족하였다.

## 2.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여 측정변수에 대해 요인분석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 평균의 차이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p < 0.05$ 의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청소년의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청소년의 성별은 여자가 111명(61.0%)으로 남자 71명(39.0%)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150명(82.4%)으로 중학생 32명(17.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유 65명(35.7%), 무 117명(64.3%)으로 종교가 없는 대상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82)	
		frequency	proportion(%)
Sex	Male	71	39.0
	Female	111	61.0
School level	Middle School	32	17.6
	High School	150	82.4
Religion	Presence	65	35.7
	Absence	117	64.3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 3.2.1 참여동기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참여동기에 대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총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xperience and enjoyment	182	1.00	4.83	3.45	.38
Recognition by others	182	1.00	4.67	3.33	.51
Leisure use	182	1.33	5.00	3.35	.43
All	182	1.11	4.72	3.38	.36

참여동기 요인의 전체는 M=3.3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험과 즐거움(M=3.45)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용(M=3.35), 타인인정(M=3.33) 순으로 나타났다.

### 3.2.2 진로정체감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요인에 대한 경향은 5점 총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로정체감 요인 전체에 대한 점수는 M=3.3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자기의심(M=3.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진로탐색(M=3.37), 유연성(M=3.35), 심층적 진로탐색(M=3.30), 진로일체감(M=3.23), 진로몰입(M=3.1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vocational identity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Overall career exploration	182	2.00	4.80	3.37	.51
In-depth career exploration	182	1.00	4.40	3.30	.48
Career immersion	182	1.00	4.67	3.12	.69
Sense of career unity	182	1.00	4.80	3.23	.57
Career self-doubt	182	1.00	5.00	3.51	.71
flexibility	182	1.20	4.40	3.35	.39
All	182	2.00	4.08	3.31	.42

###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N=182)

Classifica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vocational identity
	Experience and enjoyment	Recognition by others	Leisure use	
Experience and enjoyment	1			
Recognition by others	.444**	1		
Leisure use	.527**	.554**	1	
Vocational identity	.320**	.325**	.400**	1

\*\* $p < .01$

각 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경험과 즐거움’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r = .320, p < .01$ ) 및

‘타인인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r = .325, p < .01$ )는 작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용과 진로정체감은 조금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 = .400, p < .01$ ). 이는 각 변수들 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 3.4.1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차이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Mean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by Gender

Classification	N	M	SD	t/p	
Participation Motivation	Male	71	3.33	.45	-1.498
	Female	111	3.41	.29	
Vocational identity	Male	71	3.36	.48	1.286
	Female	111	3.28	.38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동기( $t = -1.498, p > .05$ ), 진로정체감( $t = 1.286, p > .05$ )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참여동기(남자 M=3.33, 여자 M=3.41), 진로정체감(남자 M=3.36, 여자 M=3.28) 요인의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4.2 학교급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청소년의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동기( $t = -2.094, p < .05$ ), 진로정체감( $t = -6.921, p < .001$ )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급

에 따라 참여동기(중 M=3.26, 고 M=3.40), 진로정체감(중 M=2.89, 고 M=3.40) 요인 모두 평균값이 고등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 평균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Mean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by Educational Stage

Classification		N	M	SD	t/p
Participation Motivation	Middle school	32	3.26	.42	-2.094*
	High school	150	3.40	.34	
Vocational identity	Middle school	32	2.89	.44	-6.921***
	High school	150	3.40	.36	

\* $p < .05$ , \*\*\* $p < .001$

### 3.4.3 종교 유무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 $t=6.191, p < .001$ )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동기( $t=1.685, p > .05$ )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진로정체감(유 M=3.55, 무 M=3.18) 요인은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참여동기(유 M=3.44, 무 M=3.34) 요인은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Table 9. Mean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by Religion Status

Classification		N	M	SD	t/p
Participation Motivation	With religion	65	3.44	.35	1.685
	Without religion	117	3.34	.37	
Vocational identity	With religion	65	3.55	.21	6.191***
	Without religion	117	3.18	.45	

\*\*\* $p < .001$

다른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차이는 Table 9과 같다.

### 3.5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참여동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vocational ident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Tolerance
		B	Standard error	$\beta$		
Vocational identity	Constant	1.632	.282		5.794***	
	Experience and enjoyment	.140	.090	.126	1.548	.689
	Recognition by others	.100	.068	.121	1.455	.661
	Leisure use	.259	.085	.267	3.041**	.595
		$R^2=.186, Adj. R^2=.173$				
		$F=13.591, p=.000, Durbin-Watson=1.055$				

\*\* $p < .01$ , \*\*\* $p < .001$

진로정체감에 대한 참여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18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8.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값이 1.055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 $F=13.591, p < .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가활용( $\beta=.267, p < .01$ ) 요인만 진로정체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경험과 즐거움( $\beta=.126, p > .05$ ), 타인인정( $\beta=.121, p > .05$ ) 요인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여가활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경험과 즐거움, 타인 인정 등의 콘텐츠 보다는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와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유무에서는 진로정체감 요인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은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이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급(중·고등학생)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차이가 있었다[22]는 결과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은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학교급별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학교급 요인을 감안한 효과적 전략을 이용하여 진로정체감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예술심리치료사의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종교가 없는 청소년보다 진로정체감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청소년의 종교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 중에서 여가활동만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미는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여가적 활동 심리치료가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은 본 연구에서 1~5단계의 치료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여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프로그램 참가동기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Park과 Kim[2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 여가스포츠 참여동기가 자아존중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연구[24]와 본 연구결과

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참여동기와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여가적 도구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스트레스의 해소와 진로정체감의 긍정적 활용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학교 및 학원 수업은 여가활동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면한 입시와 학업으로 인한 심적인 중압감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술치료는 청소년의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25]와 자아정체감[26]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예술치료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27]. 이러한 예술치료의 특성은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대한 강화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 및 참여자들과의 상호 피드백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여 정서 안정과 미적 발달, 자기인식 및 자기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고 균형감각,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강화와 진로정체감 향상의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한계점인,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참여동기를 부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연구 범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통합예술심리치료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접목하여 시도하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적합한 참여동기 중에서 여가적 치료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적 치료프로그램 활용은 자기개발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며 휴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주도적으로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본 연구 성과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관하여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U시 소재의 특정 지역상담센터의 청소년들을 한정하여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고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향후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여가활동으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K. H. Oh, D. J. Kim, J. G. Kim, Y. S. Kim, "The effects of forest-healing program on developing Youth activity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2, pp.1-24(24 pages), Feb. 2016.
- [2] E. K. Lee, A. R. Shin, S. K. Kim, E. T. Le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Analysis", *Forum for youth culture*, Vol.50, pp.91-112, 2017.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7.04.50.91>
- [3] J. H. Kim, *The Effect of a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areer Self-Efficacy-Teenager Occupation Program (TOP)*,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4] H. K. Song,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21.
- [5] H. J. Jeon, H. W. Chung,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0 No.2, pp. 321-347, 2019.  
DOI: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321>
- [6] W. S. park,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o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8, No.2, pp.289-304, 2005.
- [7] S. H. Kim, *Study on the effect of culture and arts activities participation motive on subjective well-being -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learning*,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2017.
- [8] Y. S. Lee, H. K. Jung, "The Effect of Art Management Class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on Career Exploring Behavior and Career Preparing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26, pp.17-34, 2012.
- [9] B. R. Kim, B. W. Kim, "The Effects of the Collective Career Exploration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Identity of the Dropout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1-22, 2015.
- [10] B. R. Kim, B. H. Kim,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who dropped out of school",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1-22, 2015.
- [11] J. O. Yoon, Y. B. Kang,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art therapy programs", *Youth Culture Forum*, Vol.38, pp.33-69, 2014.  
DOI: <http://doi.org/10.17854/ffyc.2014.04.38.33>
- [12] H. K.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Organized Storage Education 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Happiness-For Adult Learn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Culture, Seokyeong University, 2021.
- [13] E. H. Lee, S. A. Bang, "The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Program on Self Efficacy of Juveniles with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6, pp.2520-2527,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6.2520>
- [14] N. Y. Hur,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Self-real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University Students'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Lesure, Recreation & Park*, Vol.34, No.4, pp.39-49, Dec. 2010.
- [15] Y. A. Im, K.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tyle, Participation Motive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Yoga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42, pp.1231~1238, 2010.
- [16] A. R. Nam, J. Ha, "A study on career identity, career undecided,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career choice typ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8, No.21, pp.27-43, 2012.
- [17] J. L. Holland, *The self directed search: A guide to educational and vocational planning*, Palo Alto, California: Counselling Psychologist Press, 1977.
- [18] E. S. Lee,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therapists on Job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49-59, 2021.

- [19] E. S. Jin, *The Influence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ies on Happines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2.
- [20] E. J. Porfeli, B. Lee, F. W. Vondracek, & I. K. Weigol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Vol.34, No.5, pp.853-871, 2011.
- [21] Y. M. Soh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Vocational Identity across Cultur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areer Counseling*,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2018.
- [22] S. Y. Cho, K. C.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for middle, high school students", *Youth Studies*, Vol.21, No.9, pp.325-349(25pages), 2014.
- [23] M. j. Park,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career decisions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6, No.1, pp.137-153, 2003.
- [24] T. S. Lim, J. Y. Kim, H. Y. Lee,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steem and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Sports Activities of Collegiat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8, No.1, pp.581-595, Nov. 2014.
- [25] S. J. Park.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tudents with Withdraw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Suwon, 2017.
- [26] S. H. Lim, *Art Therapy for Enhancing Ego Identity of an Adolescent with Depression-from Kohut's Self Psychology Perspect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2007.
- [27] J. Y. Lee, *The Effect of Career Group's Integrated Art Therapy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sychological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 Focusing on Alternative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2016.

---

송 경 미(Kyeng-my Song)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 융합콘텐츠

---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